

수행자 삶이 참선·포교당·보살행

‘봐라 꽃이다’

김영옥 지음

수행자의 삶이란 완성된 자로서 펼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 서술 푸른 정진을 하는 과정의 삶이다. <봐라, 꽃이다> (호미)는 그 삶이 어떠한지를 서른분의 스님을 통해 보여준다. 그 주인공들은 도법·무비·성웅·법등·혜남 스님 등 한국불교의 내일을 책임질 법랍 30~40대의 중진 스님들이다. 눈 푸른 남자에서부터 학승, 행정승, 도심 한가운데서 보살행(사회복지)을 펼치는 스님

년 세월 경전을 멀리했던 수좌 출신인 학답 스님은 “노동에 지친 사람들에게 선은 노동의 생산적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수행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간화선이 가장 수승한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소리에 유난히 민감하거나 사물의 형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한결같이 정전백수자나 마삼근의 화두를 들이대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한 역경 사업과 팔만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종림 스님, 인재 양성을 위한 불교적 인프라 확충, 농업과 교육을 아우르며 사찰 공



에 회향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의지의 실천 현장이었다. 그들이 깨어나려는 중생도 한 꺼풀 무명만 벗으면 모두 본래 청정한 부처다”며 수행의 방편으로 읽을 것을 권한다.

이 책은 월간 ‘해인’ 지에 95년부터 매월 ‘호계삼소’란 제목으로 연재한 글 가운데 한 권 분량에 맞추어 엮은 것이다. 값 9천원.

출판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 pia.com

서른 분 스님의 삶 그림 그리듯 묘사

소쩍새마을 재건 등 불교복지 헌신
수행 현대화·대장경 전산화에 심혈

등 방편은 각기 다르다. 하지만 서른명 스님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저마다 뚜렷한 원력으로 열심이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란 점이다. 물론 그 수행의 궁극은 하나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화하중생(下化衆生).

종범 스님과 무비 스님을 통해서 승가교육의 실상을 엿볼 수 있고, 무너진 소쩍새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보각 스님에게서는 불교복지의 현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다. 보각 스님처럼 보살행에 뛰어든 스님들의 활발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수행 방법론의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도 있다. 10

동체의 모델을 제시하는 일 등 한국 불교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고 있는 도법 스님 등. 이러한 스님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한국불교의 모습이 생생한 그림으로 펼쳐진다. 수행자의 삶이 곧 선방이고 포교당이며 보살행임을 깨닫는 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다.

지은이 김영옥 씨는 머리말에서 “5년 동안 엮은 수행자들의 삶은 출가의 비록 힘든 어퍼했다지 간에 존재의 뜻은 중생

팔리어 대장경 우리말본 완간

쌍옷따 니까야 10, 11권

전재성 회장



한역본인 <잡아합경>으로 알려진 팔리어 대장경 쌍옷따 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됐다.

한국불교알리성 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최근 <쌍옷따 니까야> 10·11권 출간을 마지막으로 팔리어 대장경 <쌍옷따 니까야> (부록 포함 12권, 한국불교알리성 전협회의 우리말본을 완간했다. <쌍옷따 니까야>는 불교 최초의 경전

인 팔리어 대장경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부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짧은 대화 형식의 경전 2,889개를 모은 것이다. 여기서 ‘쌍옷따 니까야’는 ‘주제에 따라 함께 엮은 가르침 또는 경전들의 모음’이란 뜻이다. 연기, 사성제 등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우리말 <쌍옷따 니까야>의 가장 큰 특징은 한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현대의 일상어로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염(ati)’은 ‘마음새김’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는 각각 ‘감각적 쾌락의 세계’ ‘형상의 세계’

‘무형상의 세계’라는 용어로 대신했다.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원전에는 없는 화자를 괄호 안에 넣고 연결부사도 문맥에 맞게 넣고 했다.

기존 번역과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은 6,184개의 주석을 달아 최소화했다. 유사한 내용의 한역 경전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역 <아합경>의 고유번호를 주석으로 달았고, 동국역경원에서 간행한 한글대장경의 <잡아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경전이 있는 경우

는 경전의 제목에 주를 붙여 표기했다. 팔리어 원어와 한역 술어도 가능한 밝혀놓았다. 봉정식은 25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전권 30만원. 02)2631-1381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놔서”

‘짹짹하는 스님이야기’

현진 스님 지음

이야기 하나. 군대 간 청년이 야 발음이 되지 않아 작전 중에 죽은 일이 있다. 암호명이 고구마인데 ‘고구미’라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위해 4재를 지내며 “다음 생애는 발을 정확하게 하는 몸을 받으라고”고 빌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스님의 영불소리를 자세히 듣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니무 이미티불, 권세음보살” 그 절의 스님도 아들처럼 ‘야 발음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깨어난 어머니를 보고 스님이 말했다. ‘보살님, 죄송합니다. 힘 믿어 없었습니다.’

이야기 둘. 입선 시간이었다. 고요한 속에서 어느 스님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격정이 된 입승 스님이 “어디가 아프십니까”하고 물었을 때, 몸을 떨던 스님이 멧쩍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아서...”

<짹짹하는 스님이야기> (다할미디어는 현진(해인사 포교국장) 스님이 수행의 길에서 만난 스님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롯해 일상생활과 산승을 오가며 겪은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값 8천원.

일상 삶 밝히는 법문 모음

‘밝은 지혜 맑은 마음’

보광 스님 지음

해인사 회랑대에서 정진하고 있는 보광전 해인사 주지 스님이 신도들에게 설한 법문을 모은 <밝은 지혜 맑은 마음> (장경각)은 일상의 삶을 밝히는 나침반 역할을 해 줄 책이다.

스님은 <화엄경>의 발광지(發光地)를 이렇게 설명한다. “꼭 욕하고 나온 사람보고 흔히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인물이 흰해줬네’ 하고 하지요. 그것이 발광지입니다. 거울의 때를 말끔히 닦아 내고 나면 삼라만상이 조금도 일그러짐 없이 거울에 그대로 투영되듯이, 악업을 말끔히 여우고 나면 본래 갖추고 있던 청정한 지혜가 비로소 그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학과 수행을 적절한 비유와 경전의 인용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책장을 넘기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사친들이다. 사진작가 손재식 씨의 사친이 법문과 어울려 책을 읽는 모습이 마음을 시원하게 수 있게 한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성철스님 서편이야기	원택 김영사	김영사
2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진 운주사	운주사
3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시화 김영사	김영사
4	내가 본 부처	도법 호미	호미
5	봐라 꽃이다	김영옥 호미	호미
6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지외 민족사	민족사
7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연호택 여시아문	여시아문
8	만화 지장경	정일 보광선원	보광선원
9	현대판기도 영험록	성일 불광	불광
10	꽃은 어디에 피어도 향기를 낸다	최복현 지혜의나무	지혜의나무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은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 2,000원

현암사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사랑의 도깨비 방망이

‘운주사의 하안도깨비’

김자환 지음

누워 있는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참 세상이 열린다는 전설을 간직한 운주사를 소재로 한 동화집 <운주사의 하안 도깨비> (다할미디어)가 나왔다.

하안 도깨비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까지 떠돌이 도깨비가 될 위기에 처하자 도깨비 마을을 떠나 운주사 뒤편 다탑봉에 거처를 꾸민다. 화순군 국회의원 서봉식 씨의 딸 은희는 언청이다. 이런 딸을 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선거에서 표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 아버지는 은희를 운주사에 숨겨 놓는다. 삼정은 은희의 말벗이다. 이들 셋은 쌍와룡이 누워 있는 다탑봉에서 만나 우정을 나누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운주사의 쌍와룡을 훔치려는 도둑들의 음모를 알게 되고 셋은 도둑을 잡게 된다. 이 일로 운주사가 방송에 보도되는 바람에 은희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 상처부서이 은희의 아픔을 덜어 주고 싶은 하안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자신의 목숨과 은희의 행복을 바꾸려 한다.

책은 각자가 속한 세계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값 7천5백원.

‘초발심자경문’ 3부작 완간한 지록 스님



출간한 이후 주로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를 이야기해 왔던 지록 스님이 <초발심자경문 강설> (우리)를 마지막으로 ‘초발심자경문 3부작’을 완간했다.

지록 스님의 ‘초발심자경문 3부작’은 20년 전 해인사 행사실 증강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했다. 그 때 스님은 행자들을 위해 직접 손으로 <초발심자경문 난자집(단어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전이 많도록 난자를 찾는 게 전통적인 공부법이었던

승가교육환경에서는 이 난자집은 혁명(가)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스님은 강원선후배 스님들에게 난자집 찬부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보다 폭넓게 학문을 연마하고 수행을 더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난자집이 필요하다. 밤이고 낮이고 난자 때문에 책상 앞에 엎드려서 자전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

고문(苦悶)을 현대어로 옮기는 일뿐만 아니라 10만 이상이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복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권은 행자살마다 복사하고 복사해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낡은 난자집을 소책자와 보급판 두 종류로 출간한 <초발심자경문 난자집> (95년)이다. 세 번째 권은 49과로 나눠 풀이한 <초발심자경

“자경문 읽으며 보조스님 체취 느꼈다”

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얻고 시작한 것이 오늘의 결실입니다.”

3부작의 첫 권은 순천 송광사 화엄전에 소장된 언해본을 영인한 <초발심자경문 목판본> (88년)이다. 스님은 이 탁본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어내기 위해 한철을 외부와 단을 쌓고 지낼 정도로 힘들었다고 한다.

문 강설)이다.

<초발심자경문> 3부작이 <죽비 깎는 아침>, <산승일기> 등 그동안 출간한 12권보다 비중이 크다는 스님은 “자경문을 정독하면 800년 전 보조국사의 체취와 고려불교의 생활상까지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불제자라면 꼭 읽을 것을 당부했다.

TELEPHONE TEL - (053)475-3707 FAX - (053)475-3706 E-mail - buddhabook@hanmail.net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의 또 다른 수행선서

세월 속에 묻혀 사라진 장엄정법을 스님 특유의 간결하고도 선명한 글로 표현한 이 책은 수 년 만에 걸쳐 집필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산과 들을 헤매며 씌운 생생한 볼록과 연꽃이 책 속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연꽃, 흔히 볼 수 없었던 한국의 야생화가 스님의 문체와 함께 어우러져 멋진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길술 여행

“법보시 아시면 알입니다.”

- ▷ 새로운 불교공부 (정가 7,500원)
- ▷ 우학스님 신행상담 (정가 7,000원)
- ▷ 사경시리즈 (총 16종 22권)
- ▷ 경전조사서록
- ▷ 법화경 사경 (1권~7권 정가 6,000원)
- ▷ 불자수행지침서 (정가 10,500원, 양장제본)
- ▷ 장가 안가길 잘했네 100 (각 6,500원)
-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100 (정가 7,000원, 6,000원)
-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정가 2,000원)
- ▷ 삼천배 삼천부처님 (정가 10,000원, 양장제본)
- ▷ 불교 전문의식 (정가 5,000원)
- ▷ 포켓 불자독송집 (정가 2,000원)
- ▷ 금강경 사경노트 (정가 3,000원 한문/한글)
- ▷ 금강경 핵심강의 (정가 7,000원)
-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상·하] (각권 6,000원)
- ▷ 범불속의 명구 (정가 2,000원)
- ▷ 불교 EQ (정가 5,000원)
- ▷ 불교적 해석의 명심보감 (정가 5,500원)
- ▷ 아하하부처님 오호호부처님 (정가 4,000원)

15 x 22cm / 208페이지 / 정가 10,000원
하드커버 양장제본, 전면 윌 칼라

살며시 드러나는 우학스님의 잔잔한 추억의 발자취를 따라 산과 들, 그리고 출세속의 향기에 취해 보십시오!

우학스님의 친서 발송 대량도 판매중 (문의 053)474-8229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시인 장용철의 작고 아름다운 이야기

이말리나 칼리만조외 만년설(萬年雪) 꼭대기에 가이만이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장 밑 강아지들 한줄기에서도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텅텅망망 바닷물을 다 먹어 보아도 배가 터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물 안방울만 먹어 먹어 보아도 배가 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눈은 눈을 보지 못함같이 오직 보여지는 것이 있어 하고 보여지는 것은 눈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멀리 보지만은 안보게 보다 가까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함입니다. 평화가 가장 열심이 돌 때 오미여적 저리쯤 잡고 서듯 인생도 최선을 다하여 살 때 아무런 불만의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자는 저 몸이 생긴 발명 때문이 죽고 사는 게 몸이 난 놈 때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 본문중에서 -

우리를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감동을 읽는다. 순간을 읽는다!

블록킹 예인엔 전화 02)913-0753 팩스 02)913-0755